

시위 중 경찰 차 부순 광주·전남 농민·노동자 24명에

“피해액 2,880만원 배상하라”

LIG손해보험사, 구상권 청구

농민·노동자단체 “깎아 달라”

보험회사가 시위 도중 경찰 차량을 파손한 광주·전남지역 농민·노동자 24명을 상대로 “피해액 2천880만원을 배상하라”며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해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민·노동자단체는 “모든 집회 과정에 구상권 청구가 남용될 것”이라며 반발하면서도 패소할 것에 대비, 자체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노총은 또 LIG손해보험 노조와 배상금 절반 가량 깎는 방안 등을 놓고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LIG손해보험은 ‘농민회 광주·전남 연맹’ 기원주 부위원장·광주전남진보연대 허연 의장·민주노총전남본부 신중천 전 본부장 등 농민·노동자 24명을 상대로 “2004년 9월11일 열린 광주시 금남로 농민 집회 때 파손시킨 경찰 차량 수리비 2천880만원(이자 400만원 포함)을 배상하라”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이들 중 민노총 전남본부 신중천 전 본부장·박오연 전 사무처장 등 2명의 월급을 가압류했다. 이들은 쌀개방을 반대하며 벌어진

▲구상권(求償權)=타인에 의해 손실을 입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9·11 농민대회’에서 1천여 명의 농민·노동자들과 함께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 7대를 부렸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부서진 순찰차와 전경버스 등의 피해 보상을 자동차보험 계약사인 LIG 손해보험에 신청했고, 보험사는 수리비를 지급했다. LIG 측은 이후 농민·노동단체 대표 24명이 불법시위와 폭력 혐의 등으로 2005년 8월 징역형(1명)과 벌금형(23명)을 선고받자, 구상권을 청구

한 것이다.

농민·노동·진보단체들은 이와 관련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법률 검토 결과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LIG 노조와 배상액 조율 ▲배상액에 대해 경찰에 책임 추궁 ▲각 단체별로 모금 등을 논의했다.

민노총은 이자를 뺀 원금의 절반인 1천200만원만을 이달 말까지 배상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문제를 놓고 LIG 노조와 논의 중이다. 또 민노총 산하에서 500만원을 모금하는 등 각 단체별로 배상금을 모을 계획이다.

농민단체들은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사법처리된 사람들이 이미 1천500만원을 벌금으로 냈는데 구상권이 청구된 것은 너무하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응급처치법 경연대회 4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응급처치법 경연대회’. 이날 대회에는 초·중·고 및 대학·일반부 70개 팀 350여 명이 참가해 응급처치 일반원칙·이해력·숙련도 등을 겨뤘다. 최고상(대한적십자사 총재상)은 광주 동림초·여수 중앙여중·여수 정보과학고·광주 중앙여고가 차지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침 (7349) 김중두



다들 물어봐...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대학교 대학원

KCC정보시스템정보 생산·시공

▶ 02-2625-1111-1102 ▶ 02-2625-1107-1108

(주)본드나리 KCC건설, 연세대학교 대학원

실리콘·방수제·합착제·타이프

▶ 02-2625-1111-1102 ▶ 02-2625-1107-1108

■ 광주시 청구 손해소는 어떻게...

청사 파손 42명 2억원 소송

광주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광주시가 지난해 11월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위 도중 시청사를 파손한 기아자동차 노조원 김모(30)씨 등 42명을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지법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

정에서 주장·진술하는 변론(辯論) 기일을 가졌다. 시에서는 자문변호사인 서한기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노총도 지난 7월 변호사를 선임했다.

광주지법은 앞서 지난해 12월4일 광주시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길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

아자동차 노조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시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광주지청 앞에서 현물납부 등 항의를 벌여온 민노총은 제88회 광주체전을 앞두고 “고소당한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되는 등 충분한 대가를 치른 만큼 손해소를 취하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며,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반면 광주시는 “공(公)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시민 사과 등이 없고 공과대가 형성되지 않아 임의로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차에 매달고 질주 뇌손상

대법 “보험금 줘야”

읍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질주하다 예상치 못한 중상해(重傷害)를 입었다면 운전자의 ‘고의 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4일 5회재가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면책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이모(42)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경찰관이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상해를 입을 것으로 예견했지만,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쳐 식물인간 상태에 이를 것까지는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고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147%로 운전하다 읍주단속 중이던 의무경찰 조모(24)씨를 차에 매단 채 400m가량을 도주하다 조씨를 떨어뜨렸고, 조씨는 이 과정에서 도로 인근 지하철공사 현장에 놓여있던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연습스

회순 국도 승용차 충돌

일가족 등 9명 부상

4일 오전 10시54분께 회순군 이양면 오류리 삼거리에서 10노14XX호 SM5 승용차(운전자 성모·40)와 59도 95XX호 아반떼 승용차(운전자 김모·여·34)가 충돌, 두 차에 타고있던 일

가족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 성씨는 광주에서 보성 치가에 가던 중이었으며, 김씨는 고흥 친정집에 들렀다가 광주로 되돌아오던 길이었다.

경찰은 신호가 없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운전자들이 상대 차량을 서로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순수기자 css@kwangju.co.kr

응급환자 6촌 형 병원 이송하려다...

고흥서 60대 바다 빠져 숨져

지난 3일 밤 9시56분께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금진 선착장에서 최모(60)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최씨는 이날 오후 풍풍(中風)을 앓던 6촌 형(72)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피가 멈추지 않아 마을 어선 을 이용, 고흥 농동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가려다 선착장 인근 바다에 빠져

다. 최씨는 주민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최씨가 선착장 주변에 낚이기에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 익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편의점서 음료수 ‘슬쩍’ 미국인 딸미



○20대 미국인 이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내 편의점에서 음료수 1병을 몰래 훔쳤다가 범행 현장이 CCTV에 찍히는 바람에 딸미.

○4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미군 용역업체 직원 S(26)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시 서구 L.O 오피스텔 내 편의점에서 환타 PET 1병(1천100원)을 몰래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고 유유히 빠져나갔다는 것.

○S씨는 5시간 후 오피스텔로 들어오던 길에 편의점 종업원이 CCTV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알아채고 소리치자 250m 가량 달아났다가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S씨는 “한국에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된다. 호기심에 음료수 한 병을 훔쳤는데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고 진술.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여자축구 김지수 뇌사 3개월만에 사망

유족들 “의료사고” 주장

국내 여자축구 유망주 김지수(16·충남 인터넷고·사진)가 무릎 수술 도중 뇌사 상태에 빠진 지 3개월여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4일 한국여자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 대전의 모 대학병원에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따른 수술을 받던 중 쇼크를 일으킨 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온 여자축구 청소년대표팀(U-16) 공격수 김지수가 2일 밤 9시40분께 사망했다.

김지수는 지난해 11월 청소년 대표에 처음 선발된 뒤 올해 3월 U-16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팀 공격을 주도하며 한국을 3위로 이끌었으며, 내년 U-17 세계 월드컵 본선진출권을 따내는 데 일조했다.

여자축구연맹 측은 사이트에 ‘김지



수 선수의 명복을 빙니다’라는 제목으로 조문을 올렸고, 네티즌들은 ‘하늘 나라에서 부디 따뜻한 꿈을 펼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애도하고 있다.

유족 측은 “수술 당시 마취과 전문의에게 ‘선택 진료’를 신청했지만, 실제 마취는 다른 의사가 했다”며 “마취에 문제가 생긴 뒤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수술을 강행해 뇌사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5월

“아스트릭스” 국민보건 캠페인

뇌혈관의 혈전

심혈관의 혈전

혈전, 혈관의 적!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스트릭스